

舍利莊嚴의 新例

金正基

一、

皇龍寺九層木塔 基壇을 發掘調査하는 過程에서 전혀 새로운 舍利 莊嚴法의 樣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皇龍寺의 특히 舍利莊嚴에 關係 깊은 關心和 研究를 계속하신 黃壽永博士님의 回甲記念論文集에서 그事實을 報告하며 博士의 學德이 永久함을 祝하고자한다.

皇龍寺는 新羅眞興王一四年(五五三年)에 創建되어 高麗高宗二五年(一二三八年)蒙古兵亂에 依해 燒滅될 때까지 繼續 國家的 大刹로 많은 重修建을 거듭했고 國王의 行幸이나 大法會의 開席이 있어 이에 關한 記錄을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서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蒙古兵亂에 燒滅된 후 많은 石材들은 外地로 搬出되고 遺地에는 民家가 들어서고 또 兵亂에 燒는 田畠으로 耕作되어 몇몇 建物基壇이 낮은 土壇 같이 되어 그 위에 礎石들이 地表에 露出되어 있을 뿐이었다.

政府에서는 慶州開發計劃의 一環으로 이 皇龍寺址 一帶를 發掘調査하여 遺蹟 遺構를 整備 補修하여 遺蹟公園을 造成 保存할 方針을 세워 마침내 一九七六年부터 寺域에 대한 發掘調査가 시작되었다. 이 調査는 一九八〇年末 까지 繼續하여 調査를 完了할 予定으로 지금 發掘中에 있으며 七六年부터 七七年末 사이에 金堂址를 비롯하여 塔址 講堂址 中門址와 迴廊 內部의 余地的 建物들이 發掘調査되었다.

이들 調査에서 皇龍寺의 伽藍配置가 從來 地表調査에서 示見되어 定說化되었던 所謂 一塔式伽藍配置가 아닌 特異한 전혀 새로운 伽藍配置

로 되었던 寺刹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었다. 그것은 金堂址 左右에 金堂보다 좀 작고 낮은 基壇을 갖는 南向한 建築物이 配置되고 塔 南쪽 左右에도 鍾樓와 經樓로 보이는 方形基壇의 建築物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百濟系統으로 보이는 一塔式伽藍이 아니고 오히려 高句麗의 典型的인 伽藍配置인 平壤 淸岩里廢寺의 伽藍과 類似하며 그것을 新羅의 個性에 맞추어 變形한 伽藍配置라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迴廊은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그 類例를 찾지 못한 樑間 두 칸의 復廊이었으며 中門 左右에서 東西로 나가는 南迴廊은 東, 西迴廊과는 別途로 더 東西로 延長되며, 講堂 左右에는 迴廊이 붙지 않고 樑間 세 칸의 긴 建築物이었고 東, 西迴廊은 이들 北의 建築物이나 南의 迴廊과는 直接接觸하지 않고 基壇이 各各 獨立되어 있었다. 이러한 調査內容은 이미 新聞紙上으로나 學術發表會들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註①).

七八년에 들어서는 迴廊 外邊의 여러 建築物에 대한 發掘과 迴廊 안쪽의 이미 一次的인 調査가 끝난 建築物에 대한 二次的인 精密調査를 進行하였다. 이 細部調査 進行中에 木塔址 心礎附近에서 뜻 밖의 많은 遺物이 出土되어 從來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舍利 莊嚴 形態를 알게 된 것이다.

二、

우선 塔 心礎 周邊과 그 밑에서 遺物이 發見된 經緯부터 說明하도록 하자.

塔址는 基壇 上面에 礎石이 露出되어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었고 이 基壇 上面은 周圍 地表보다 約 1m 가량 높은 方形台地를 이루고 있었다. 發掘結果 基壇 規模는 一邊 二九, 1m 로 基壇石은 地台石一部를 남기고 그 밖의 石材들은 모두 欠失되었다. 基壇 上面 中央에는 처음



圖 1. 塔基壇土構築狀態

부터 露出되었던 巨大한 心礎가 있고 그 周圍에 各各 八列의 礎石群이 大部分 原位置에 露出되어 元來 初層塔身이 七間四面의 塔頂을 알게 했다. 이에 따라 初層塔身은 기둥 心礎距離는 二二、二m 였다.

基壇은 單層基壇으로 階段은 南面에 三個所、東西 및 北面에는 中央에 各各 一個所設置되어 있었으나、階段 石材 一部가 남은 것은 南面의 것 뿐이며 그 밖의 것은 그 痕跡만 確認되었다. 基壇 바깥 周圍에는 階段 끝을 둘러싸는 位置에 地台石 같은 길고 가늘은 石材로 基壇을 둘러싸아 基壇 地台石과 이 石材 사이를 敷塼으로 깔고 있었다. 이 地台石 같은 區劃에서 巾一、二m 밖에 다시 가늘고 긴 石材를 돌렸으며 이것은 敷塼面보다 七cm 가량 낮게 設置되어 있었다. 이 두 줄의 石材 區劃은 感恩寺 西塔에서 確認된 基壇 周圍의 敷石이나 釋伽塔 基壇周圍

를 둘러싼 金剛蓮華座 등의 所謂 塔區의 始源의 인 것인 듯 했다.

七八년에 들어서서 이 塔 基壇의 基壇土 構築狀況과 이 基壇 築造以前의 遺構 有無을 살피기 위한 作業에 들어 갔다. 이에 따라 塔 心礎 東邊에 接하여 南쪽으로 開設된 土層調査用的 發掘坑西壁 心礎 下部에서 遺物이 露出되었다. 이 土層調査用 發掘坑에서 塔 基壇土가 舊地表에서 塔 基壇 平面 보다 좀 더 넓은 巨大한 堅穴을 파고 그 밑바닥에서 좀 작은 人頭大의 넷돌을 한 번 깔고 그 위에 黃褐色의 진흙을 덮고 단단히 다지고 다시 넷돌을 깔고 진흙을 넣어 다지는 方法으로 約一、八m 까지 쌓아올려 塔 基壇土로 하고 있었다. 이 方法은 金堂址에서 確認된 진흙판으로 層層으로 다지는 版築法과는 다른 것이나 大部分이 넷돌로 構築되고 진흙은 이들 넷돌 相互를 堅固히 密着시키는 役割을 하는 것으로 基壇土의 堅固함은 版築法으로 된 基壇보다 強한 것으로 보였다. 當初 三國時代에 建立된 木塔의 心礎가 百濟의 것이나 日本의 例에 따라 基壇 上面에서 상당히 밑에 놓여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皇龍寺에서도 基壇 上面에 露出되어 있는 心礎는 後代의 重建時에 놓인 것이 고 創建 當初의 心礎는 現心礎 밑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여 相當한 期待를 갖고 心礎東邊에 接한 發掘坑을 開設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心礎 밑은 意外로 큰 塊石으로 된 積心이 들어 있을 뿐 그 積心 밑은 다른 부분과 같은 基壇土로 되어 또 하나의 心礎가 現心礎 밑에서 發見될 可能性은 적어졌다. 이 점을 좀 더 깊이 究明하기 위하여 心礎 밑 부분에서 心礎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 發掘坑을 西쪽으로 擴張하여 心礎 밑이 일부 들어날 때까지 發掘을 계속 했다. 그 結果 心礎 밑 積心 사이에서 破損된 靑銅製椀이 露出되었다. 그러나 그 밑은 如前히 다른 心礎의 存在를 나타내는 痕跡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遺物을 塔 基壇과 그 위에 세워질 建物の 安全을 위한 鎮壇具가 아닐까 생각했고, 우리나라에서 確認된 最古 最初의 鎮壇具라고 緊張했었다. 萬一、心礎 밑에 다시 한 개의 心礎가 있다면 여기 露出된 遺物은 그 心礎에 있는 舍利孔에 舍利와 같이 奉安된 舍利莊嚴具의 一部라고



圖 2. 心礎에 東接한 土層用發掘抗心礎 및 積心사이에서 遺物露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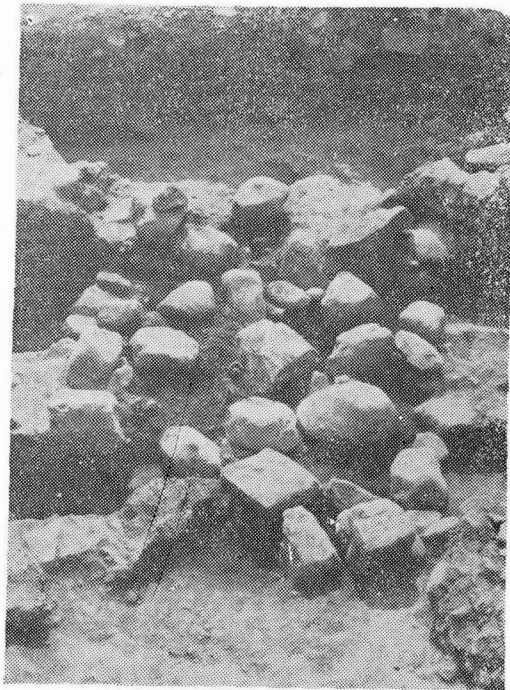


圖 3. 心礎 및 積心石과 遺物出土狀態

생각해야 할 것이나 또 하나의 心礎는 없음이 거의 確實한 狀態에서는 이들 遺物은 鎮壇具의 一部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調査가 이 段階에 이르렀을 때 이 慶州地域의 遺蹟發掘을 指導하기위 해 關係學術分野의 專門學者로 構成된 慶州遺蹟發掘調査指導委員會를 現地에서 招集하여 이 委員會의 建議에 따라 心礎 밑의 遺物을 精密正 確하게 調査하기 위하여 心礎를 一端 原位置에서 들어내어 調査를 續行 하기로 하였다.

三、

心礎를 들어내기 위한 作業은 七月四일 부터 시작되었다. 作業은 우

선 心礎周圍 約一、五m 範圍의 基壇土를 基壇上面으로부터 除去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除土作業이 進行되어 거의 心礎 밑 바닥에 가까운 部位까지 到達하였을 때 뜻 밖에도 心礎에서 約五〇cm 떨어진 範圍內에서 心礎을 둘러싸는 것 같이 金銅製太環垂飾 한 쌍을 비롯하여 銅鏡 靑銅製盒等과 水晶 및 硬玉製의 各種玉과 유리구슬等. 마치 古新羅의 古墳에서 出土되는 遺物 비슷한 遺物들이 發見되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白磁蓋付小壺의 發見이며 이것은 心礎 西南側面 下端의 心礎石이 좁은 움푹 들어간 곳에 붙쳐서 놓였으며 그 바깥은 人頭大의 좁 길쭉한 냇돌의 안쪽은 마치 이 小壺가 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半球形으로 곱게 깎아내어 옆으로 넘어 小壺가 破損되지 않도록 裝置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遺物 埋藏狀態로 보아 이들 遺物은 결코 우연히 들어간 것이거나 극히 가벼운 기분으로 埋藏한 것이 아니고 매우 精誠들인 어찌면 嚴肅한 儀式을 隨伴하면서 埋藏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이들 心礎 周圍에 埋藏된 遺物을 收拾하여 心礎 밑이 완전히 들어날 정도까지 基壇土를 除去하고, 心礎 四隅에 接解하여 놓인 四天柱 礎石을 들어낸 후 三〇cm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巨大한 心礎를 들어내어 그 南쪽 基壇 위에 安全하게 놓았다.

心礎를 除去한 뒤 그 밑 흙을 조심스럽게 들어내면서 調査를 進行한 結果 心礎를 받치고 있는 積心石 사이에서도 또 적지 않는 靑銅製 遺物을 비롯하여 많은 遺物들이 고루 分布되어 있음을 알았다. 心礎 밑의 積心石은 다른 礎石의 積心石같이 中心이 오목해진 曲面으로 뻣뻣하게 잘려진 것이 아니고 比較的 큰 돌을 드문드문 놓았으며 그들의 上面은 거의 水平面을 이루었다. 遺物은 이들 積心石 사이에 놓여 있어 心礎의 重量으로도 이들 遺物이 安全하게 保存되도록 留意했던 것 같다. 그러나 出土된 遺物은 거의가 破壞된 狀態로 出土되었다.

遺物이 모두 收拾된 후 積心石 밑을 調査해 본 結果 이들 積心石 밑은 바로 냇돌과 진흙을 交互로 쌓아 다진 塔 基壇土입이 밝혀져 이로서 그 밑에는 다른 또 하나의 心礎가 없다는 것을 完全 確認하게 되었다.

心塔 周圍와 그 밑에서 出土된 遺物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心礎 周圍 出土遺物

- 白磁蓋附小壺 二枚 內面과 器底部를 除外한 全面에 施釉된 球形胴體를 갖는 小壺로서 寶珠形 꼭지가 달린 뚜껑이 있다. 七世紀의 唐나라 白磁로 보임. 高九.五cm, 口徑四.二cm.
- 銅鏡 二枚 中央의 半球形 鈕를 中心으로 圓帶가 突出되었고, 鈕에는 靑銅環이 달렸음. 鏡은 얇은 銅으로 쌓아 놓았던 痕跡이 뚜렷하며 따라서 鏡 背面 文樣은 未詳임 直徑九.一cm.
- 金銅製太環垂飾 一雙 從來 太環耳飾이라 불렀던 것으로 中空의 太環 아래에 많은 瓔珞이 三段으로 달린 中間飾을 달고 心葉形尾飾이 달렸음 長六.二cm
- 水晶多面玉 三點 胴部中央이 가장 굵은 八面玉으로 長四.五cm 內外 임.
- 靑銅製盒 三點 靑銅板製의 球形容器로 大破되었음 口徑一〇cm 內外.
- 其他 水晶曲玉 一點 長四.九cm, 硬玉製曲玉 三點 長二.三cm, 金製 球玉 一點 經〇.五cm, 유리小玉 一五〇餘點 經〇.八cm 內外. 葉錢 針 筒形具 鈿形具等 靑銅具片 多數

- ② 心礎 밑 出土遺物
- 靑銅鏡 一點 鈕를 中心으로 方格規矩神獸文이 陽出되어 넓은 周緣에 는 銘文이 있음. 直徑 一六.五cm
 - 靑銅壺形容器 一點 銅板 二枚를 붙여 短頸있는 작은 항아리 모양으로 만든 容器로서 器表에 많은 瓔珞이며 儀器의 一種으로 보임 高一三cm, 口徑八cm.
 - 靑銅製三重鉢 一組 大, 中, 小의 세 개의 圓底 半球形鉢을 포개어 놓았음. 高五~六cm, 口徑一二.五~一四cm.
 - 靑銅製盒 二點 낮은 帶形의 굽이 달린 半球形胴體에 寶珠形 꼭지가 달린 역시 半球形의 뚜껑이 있음. 高一三cm 口徑一二cm.
 - 靑銅製碗 一三點 圓底 半球形器身에 直立口緣이 달렸음. 처음 心礎

東쪽 土層調査를 위한 發掘坑에서 發見된 遺物은 이들의 一部임. 高三、五(七)cm、口經一〇(一)五cm.

· 靑銅製鏹一點.. 斷面 矩形의 圓形 팔찌로서 表面에는 連珠文이 있음 直經 七. 五cm

· 其他: 鐵斧 一點 長七. 五cm、鐵鎌 一點 長二二cm、靑銅鉸具附帶具 一組 長二〇cm、硬玉製曲玉 六點 長三cm 內外、水晶製曲玉 二點 長二. 五cm、石製紡錘車 一點 經四. 五cm、靑銅小鈴 一點 經一. 五cm、鐵鉢 二點 長一二cm、 유리小玉 二〇〇餘點 經一cm 內外、靑銅製裝飾具 및 鐵片 多數.

四、

塔心礎 밑에서 一部 나타나기 시작한 靑銅製鉢을 보고 一端 그것이 鎮壇具의 一部라고 判斷했던 것이나 이 遺物 發見이 계기가 되어 心礎를 들어내어 精密調査를 實施하는 過程에서 意外로 많은 古式의 遺物이 發見되었다. 그들 遺物이 心礎 周邊 一定 區劃內에서와 心礎 積心石 사이에 조심스럽게 埋藏된 것으로 보아 이들 遺物을 단순히 鎮壇具로 보아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遺物들이 塔心礎 周邊과 그 밑에서 發見되고 다른 礎石이나 基壇內에서 發見되지 않았고、金堂 基壇 礎石에서도 그런 事實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것을 純粹하게 塔心礎를 莊嚴하기 위하여 어떤 儀式이 隨伴되면서 埋藏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 遺物이 心礎를 莊嚴하기 위한 遺物이라면 그것은 心礎로 使用되는 礎石의 莊嚴이 目的이 아니고 心礎上面 中央에 마련된 舍利孔에 奉安될 舍利를 莊嚴하기 위한 目的으로 埋藏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舍利 莊嚴의 한 方法이며 舍利에 대한 가장 丁重하고 精誠들인 供

養의 한 例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莊嚴方法이 當時의 木塔에 奉安되는 舍利에 대한 莊嚴方法으로 普遍화된 方法이었는지 혹은 皇龍寺塔에서 單행하여진 特殊한 莊嚴法인지는 尙장 判斷하기 어렵다. 그러나 舍利 莊嚴에 關한 새로운 資料로서 今後의 이 分野 研究에 看過할 수 없는 重要한 事實이라 믿는다.

끝으로 이 心礎 周邊과 밑에 埋藏된 遺物들이 어느 때에 埋藏된 것인지 考察하도록 하겠다.

皇龍寺 木塔心礎의 舍利 莊嚴具는 一九六四年 二月頃에 그동안 保存되었던 것을 盜掘 당한 바 있었다. 그 후 司直當局의 努力으로 이들 遺物이 回收되어 現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되었다. 이 皇龍寺木塔心礎舍利孔에서 出土된 遺物의 자세한 考證 研究는 當時 博物館長이었던 黃壽永博士에 의해 發表되었다(註②). 이에 의하면 心礎 上面 中央의 舍利孔에서 發見된 것으로 믿어지는 金銅方形箱子를 이룬 三面板에 이 塔의 塔誌가 記錄되어 있었다. 그 塔誌 第二板 內面에서 第三板 內面에 걸쳐서 塔 重建時의 新藏舍利와 舊藏舍利에 關한 記錄이 있다. 그 內容은 「文聖王代(八三九—八五六年)에 이르러 이 大塔이 東北으로 傾斜된 것을 景文王 一一年(八七一年)에 「廢舊造新」하게 되어 無垢淨經에 따라 舍利 一枚와 陀羅尼 四種을 넣은 小石塔 九九軀와 經一卷을 넣어 그 위에 舍利 一具를 安置하여 「鐵盤之上」에 넣어 마침내 景文王 一二年七月에 畢功하였다. 이때 木塔 中心을 貫通하고 있는 刹柱는 不動이었으므로 柱本舍利의 如何를 念慮하여서 그 해 一二月六日에 國王이 群僚를 이끌고 壇場에 이르러 刹柱를 들어 보았는데 礎白(舍利孔) 속에 「金銀高座」가 있으며 그 위에 「舍利琉璃瓶」이 安置되었는데 그 爲物이 不可思議나 다만 年月과 事由를 볼 수 없다. 同月二五日 依舊還置하고 다시 그곳에는 舍利 一〇枚와 法舍利 二種을 加案하였으며 아울러 事由를 記載하고 始建之源과 改作之故를 略記하여 「示萬劫表後迷」케 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三枚의 銅板塔誌가 바로 이 事由를 記載한 것임을 確認하였다(註③). 따라서 現存 心礎는 景文王代重修 以前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며 景文王代 重修時에도 그 心礎에는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元來부터 들어있던 舍利와 舍利莊嚴具를 確認하고 그 속에 다시 舍利와 塔誌를 보태어 收藏한 것이다. 그러므로 景文王代 重修時에는 心礎에 舍利孔이 있고 그 속에 舍利와 그 莊嚴具가 어떠한지조차 몰랐던 것 같다. 따라서 心礎 周邊이나 그 밑에 舍利를 莊嚴하기 위한 遺物이 埋藏된 事實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現 心礎는 景文王代 重修 以前의 것임은 틀림 없고 그것이 塔 創建 當初의 것으로 믿어지며 創建 以來 전혀 그 자리에서 움직인 일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心礎 周邊과 그 밑에 埋藏되어 있던 遺物들이 五~六世紀頃의 古墳出土遺物과 恰似한 古式的 것이라는 點에서도 짐작이 간다.

한 가지 附記한다면 景文王代 重建時 元 心礎에 舍利孔이 있고 또 그 속에 舍利와 이의 莊嚴具들이 있는 것을 생각지 못했고, 重建塔의 舍利를 鐵盤(露盤)에 넣었다는 것이 興味롭다. 혹시 이 時期에는 거의 木塔 建立이 없어서 石塔만을 建立하였기에 이미 木塔의 舍利 奉安의 一般的인 方法을 잊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勿論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資料發見과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나 一端 問題로 提起시킬 만 한 것이다.

① 金東賢 「떠오른 皇龍寺址의 偉容」 統一日報 一九七八年三月八日一〇日.

「皇龍寺址發掘二年의 成果」 新亞日報 一九七八年三月二四日.

「皇龍寺址發掘中間報告」(講演金東賢)

歷史學會月例發表會 一九七八年五月二五日.

② 黃壽永 「新羅皇龍寺八層木塔 刹柱本記와 그 舍利具」 「東洋學」 第三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一九七三年, 서울.

③ 上揭註二, p. 二七九~二八〇參照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長)